

## 중경삼림

### 녹색금융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하는 중국

지난 1 분기 중국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탄소배출 저감 테마는 4 월 중순부터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과 테마의 중장기 전망은 밝습니다. 이는 녹색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국의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인민은행은 또한 1) 녹색금융에 대한 국제적 표준 제시 및 2) 녹색금융 시장에 대한 대외 개방 확대를 통해 해당 의제를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中,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의지 확고, 정책적 지원 계속될 전망

지난 1 분기 중국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탄소배출 저감 테마(탄소배출권거래소,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는 4 월 중순부터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함.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과 테마의 중장기 전망은 밝음. 이는 녹색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국의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

특히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석상에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녹색금융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음. 가장 최근에는 20 일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여 인민은행이 탄소배출 저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화정책 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체계적으로 녹색 대출 및 녹색 채권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밝힘

\*인민은행은 녹색 금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도구로 우대금리 제공, 녹색대출 전문 리파이낸싱 기구, 금융기관에 탄소저감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권장 등을 예시로 들은 바 있음

중국은 이미 녹색금융 분야에서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장.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 Initiative, CBI)에 따르면 중국의 2020년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172 억달러로 미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4 위를 차지. 중국은 2015년과 2018년 각각 녹색채권과 녹색대출에 대한 제도를 중앙은행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지원책을 마련. 인민은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의 2030 탄소배출 정점과 2060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

### 녹색금융에 대한 국제 표준 제시 및 녹색금융 시장 대외 개방 추진

보아오 포럼 당시 이강 총재가 했던 발언 중 흥미로운 점은 1) 중국과 EU가 협력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국제적 표준 및 분류를 만들고 있다는 점과 2) 향후 중국 녹색금융 시장에 대한 대외 개방성을 높여 국제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한 점

1) EU와 함께 녹색금융에 대한 국제적 표준 제시: 녹색금융에 대한 정의는 아직 까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음. 일례로 2019년 CBI 중국은 총 558 억달러어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 집계하였지만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녹색채권은 그 중 절반인 313 억달러에 불과했다 발표. 이렇듯 국가별, 단체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글로벌 표준이 확립되는 것이 필수적

2020년 녹색채권 발행에 있어 1등 국가는 미국(511 억달러)이지만 경제권 기준으로 보았을 땐 EU가 압도적(EU 녹색채권 발행 상위 5개국 규모 총합은 1,113 억달러). 따라서 중국과 EU와 녹색채권에 대한 공동 표준화를 실시할 경우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될 확률이 높음. 이는 향후 녹색채권의 발행에 있어 자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선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매력적

중국  
경제  
삼림  
분야에  
제를  
탁트있게

연구원. 박기현, 02-3773-9006  
Economist. 안영진, 02-3773-8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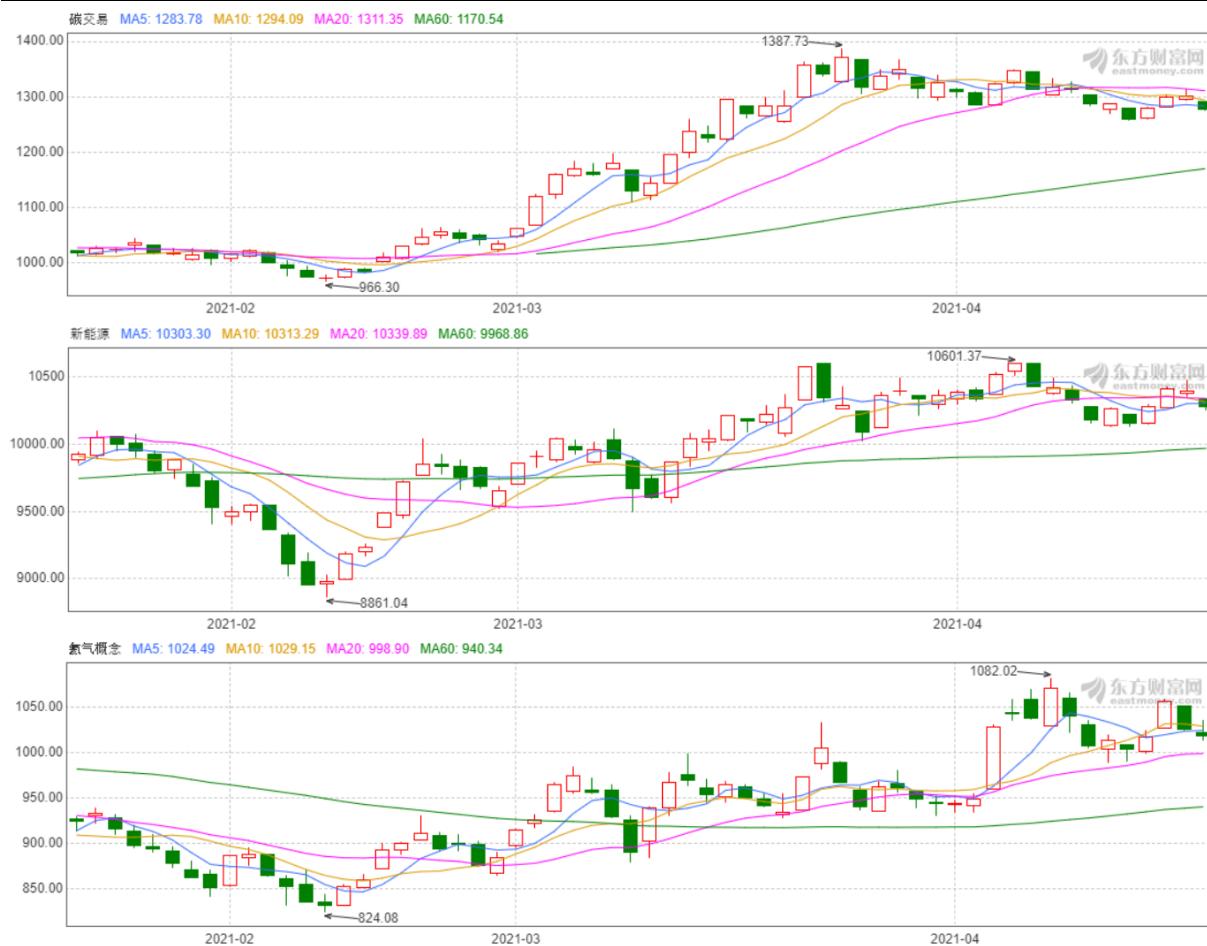
## [중국 경제를 삼분안에 임팩트있게]

2) 녹색금융 시장을 활용한 대외 투자자금 유치: 코로나 19 이후 전세계적으로 ESG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수의 신흥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ESG 기준에 부합하는 채권 시장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블랙록, 뱅가드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넷제로 자산운용사 운동(Net Zero Manager Initiative)'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각 기업의 대응을 투자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로 사용하겠다고 선언. 따라서 향후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중국과 非중국 신흥국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인민은행은 이러한 시류에 발 맞추어 추가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에 더 많은 외인 자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중국은 신흥국 중 탄소 배출 저감에 가장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잘 정비된 녹색금융 시장을 보유한 국가. 국내외 자금 흐름이 집중될 것이란 점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향후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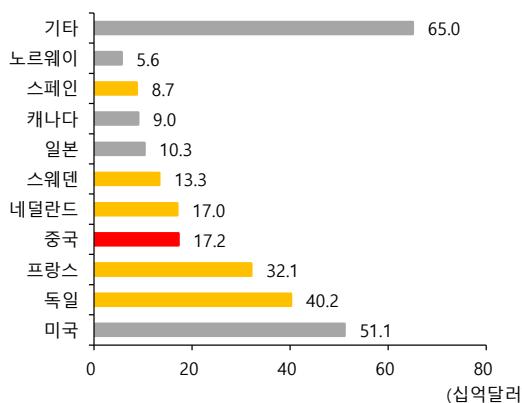
위에서 아래 순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소, 신재생에너지, 수소 테마 지수, 모두 3월말~4월초 고점을 경신한 이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



자료 : Eastmoney,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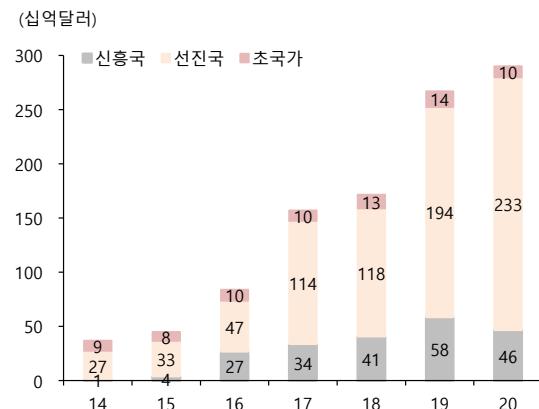
## [중국 경제를 삼분안에 임팩트있게]

2020년 국가별 녹색채권 발행액, 미국, 중국, EU 회원국이 선두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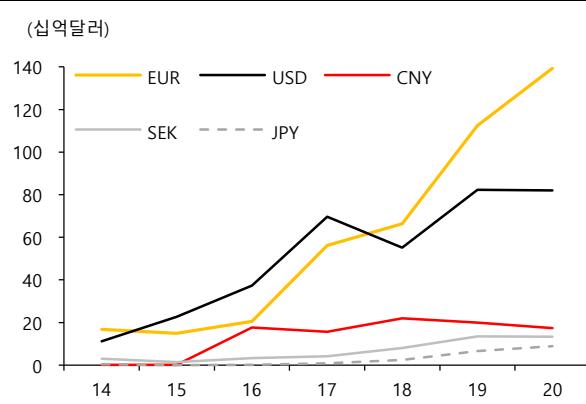
자료 : Climate Bond Initiative, SK 증권

시간이 지날수록 녹색채권 시장에서 선진국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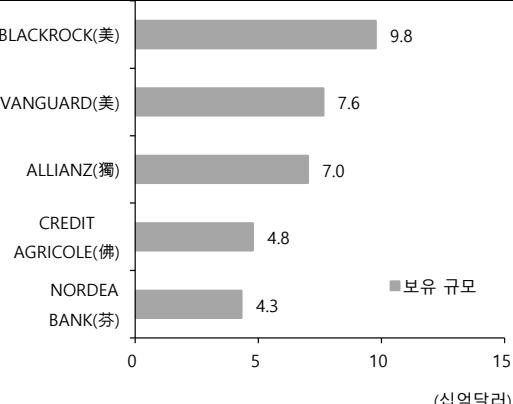
자료 : Climate Bond Initiative, SK 증권

녹색채권 발행 통화, 유로화가 압도적인 1위 달러화 2등, 위안화 3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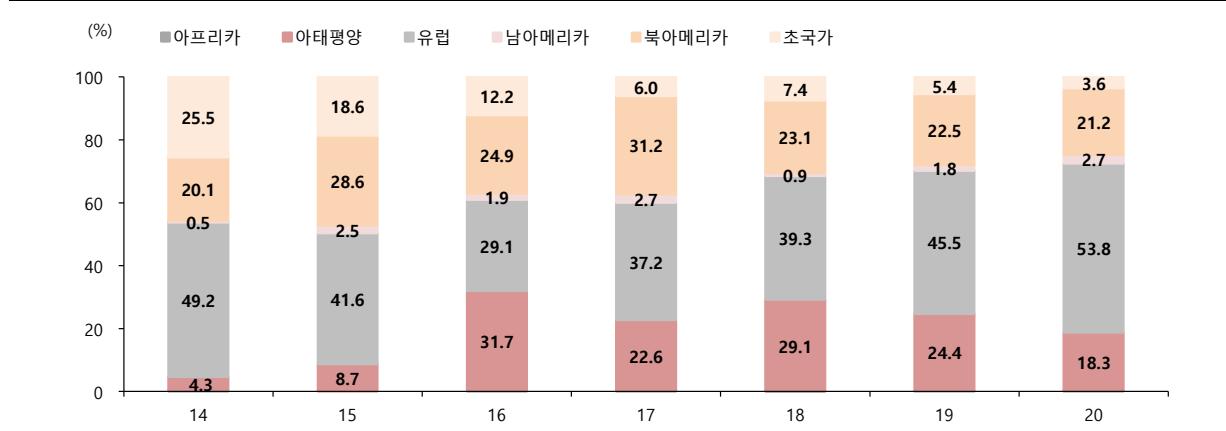
자료 : Climate Bond Initiative, SK 증권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 녹색채권 보유 금액 TOP 5, 미국과 유럽이 주도



자료 : Bloomberg, SK 증권

대륙별 녹색채권 발행 금액, 유럽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작년 기준으로 고반을 넘어섰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발행 금액은 중국이 상당 부분 차지



자료 : Climate Bond Initiative, SK 증권

## [중국 경제를 삼분안에 임팩트있게]

최근 중국 각 정부부처의 탄소중립 관련 조치, 탄소거래를 담당하는 생태환경부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중

시기	부처	관련조치
2020-12-18	국가발개위	탄소중립 관련 업무 개시, <b>에너지 소비 규제 완비, 플라스틱 오염물질 생성과 관련된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정비</b>
2020-12-21	생태환경부	탄소 배출 관련 정책 및 액션플랜 제시, 저탄소 기술 개발 및 프로젝트 투자 진행과 중점 기업의 오존, 탄소배출총량 관리 유도, 중점기업의 탄소배출 정보 공개 강화
2020-12-22	국가에너지국	<b>풍력, 태양광 발전 빠르게 추진, 수력원자력 발전소 지속 건설, 신에너지의 소비 및 저장 능력 향상, 석탄의 청정고효율 개발 활용도 제고, 전력망 건설 최적화</b>
2020-12-28	공신부	공업의 저탄소 행동 및 녹색 제조 공정 실시, <b>조강생산량 지속 축소</b>
2021-01-19	공신부	<b>자동차산업의 탄소 중립 실천 로드맵 구축, 프로젝트 투자 및 생산 관리 강화, 무분별 투자 억제, 산업 집중도 제고</b>
2021-01-29	과기부	일부 첨단 산업 개발 단지에서 먼저 탄소 중립 이뤄 신흥 오염물질 및 유동성 오염물질 배출을 중요시하고 전자정보, 의료 바이오, 신소재 산업의 오염물질 배출의 전 과정을 관리
2021-02-09	인민은행	녹색금융 업적평가 체계 완비해 <b>새로운 &lt;녹색채권 지원 프로젝트 리스트&gt;</b> 발표, 더 많은 통화정책 수단 모색해 저비용으로 저탄소 녹색 프로젝트 지원
2021-02-22	국무원	정부의 <b>녹색구매</b> 역량 강화, 녹색상품 구매 범위 확대, 녹색 구매제도를 <b>국유기업으로까지 확대</b> , 지방에선 보조금 등의 방식을 통해 <b>녹색 소비 독려</b>
2021-02-25	생태환경부	탄소 배출량 저감을 오염물 배출 관리의 핵심 과제로 설정, 천연가스와 전기로 석탄 사용을 대체

자료 : 해통증권, 뉴스핌 정리, SK 증권

영국 비영리 단체 Positive Money 가 계산한 G20 국가 중앙은행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점수, 중국 인민은행이 유일한 C 등급으로 1위

Rank	Country	Research and Advocacy (out of 10)	Monetary Policy (out of 50)	Financial Policy (out of 50)	Leading by Example (out of 20)	Aggregate Score (out of 130)	Grade (A+ to F)
1	China	10	16	24	0	50	C
2	Brazil	10	16	18	1	45	C-
3	France	10	3	22	8	43	C-
4	United Kingdom	10	4	19	5	38	D+
5	European Union	10	2	15	6	33	D+
6	Italy	10	2	15	4	31	D+
7	Germany	10	1	15	3	29	D
8	Indonesia	10	1	8	2	21	D
9	Japan	10	5	4	0	19	D-
10	Australia	10	0	4	1	15	D-
11=	Canada	10	0	2	1	13	D-
11=	Mexico	10	1	1	1	13	D-
13=	South Korea	10	0	1	0	11	D-
13=	United States	10	0	1	0	11	D-

자료 : Positive Money, SK 증권

## [중국 경제를 삼분안에 임팩트있게]

###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박기현, 안영진)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6 개월 기준) 15%이상→ 매수 / 15%~15%→ 중립 / -15%미만→ 매도